

학대 피해경험이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성향점수매칭분석*

하혜주** · 심은정***

초 록

본 연구는 국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대 피해경험이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학대 피해경험 여부에 따른 정서 문제(i.e., 주의집중, 우울, 공격성, 신체 증상, 사회적 위축), 자아 인식(i.e.,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및 또래 애착(i.e., 의사소통, 신뢰, 소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이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초4패널의 3~5차 연도(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2학년) 자료 중 1,685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성향점수매칭분석(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을 이용하여 사례별 성향점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1 매칭을 실시하여 집단 간 특성이 동일하도록 재구성된 학대 및 통제집단 각각 533명, 총 1,066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대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학대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우울, 공격성, 신체 증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학대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또래 관계에서의 소외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의집중, 사회적 위축, 또래와의 의사소통과 신뢰에서는 학대 피해경험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학대가 정서 및 사회적 발달과 자아 인식의 발달을 저해하므로, 학대 피해경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심리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학대, 정서 문제, 자아 인식, 또래 애착, 성향점수매칭분석, 한국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KCYPS2010)

* 이 논문은 2019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한국연구재단-2019-글로벌박사양성사업 NRF-2019H1A2A107286)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KCYPS 2010)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임.

**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박사 수료, 제1저자

***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교신저자, angelasej@pusan.ac.kr

I. 서론

국내 아동학대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아동학대 사례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18년 아동학대 사례는 2010년에 비해 4.35배 증가한 24,604건으로 확인되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최근 실시된 국내 아동학대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아동 4명 중 1명이 학대 피해경험이 있음을 보고하였다(Ahn et al., 2017). 특히, 아동학대 사례의 대다수는 부모나 대리양육자에 의해 발생하였으며(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Ju & Lee, 2010),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빈번히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전체 사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이러한 부모나 양육자로부터의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상적인 심리사회적 발달 및 적응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은 광범위하게 입증되어 왔다(Cicchetti, 2016; Lansford et al., 2002; Trickett, Negri, Ji & Peckins, 2011). 그 중에서도 학대받은 아동은 학대받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 불안, 신체화를 비롯한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보고하며(Arslan, 2016; Butaney, Pelcovitz & Kaplan, 2011; Gardner, Thomas & Erskine, 2019; Moylan et al., 2010), 높은 공격성이나 충동조절 문제를 보인다(Butaney et al., 2011; Shackman & Pollak, 2014). 주의집중 문제 역시 피해 아동이 자주 보고하는 증상 중 하나로, Sanderud, Murphy and Elklit(2016)는 학대 피해경험 집단이 미경험 집단에 비해 집주의 어려움, 과잉 행동을 포함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증상을 가질 위험이 2~5배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대받은 사람들은 학대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낮은 자존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Arslan, 2016; Ju & Lee, 2018). 다시 말해, 그들은 자기를 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을 무능하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Cast & Burke, 2002). 아동 및 청소년 시기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이 시기의 주요 과업인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인효연, 2018), 실제, 최미혜(2016)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와 방임의 경험이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래 관계 문제나 사회적 상황에서의 부적응 역시 학대받은 사람들이 자주 보고하는 어려움이다. 그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 놓였을 때 공포를 느끼거나 회피하는

특성을 보이며(Rokita, Dauvermann & Donohoe, 2018), 사회적 상황에 적절히 참여하지 못하거나 쉽게 움츠러들고 주눅 드는 것과 같은 사회적 위축을 자주 보고한다(Moylan et al., 2010). 또한, 학대 피해를 경험한 개인은 또래들과도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며(안은미, 이지연, 정익중, 2013; Gorrese & Ruggieri, 2012; Ju & Lee, 2018),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높은 소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익중, 2008).

더욱 심각한 것은, 아동학대가 아동기 심리사회적 발달 및 적응상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 우울, 불안, 조현병, 성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정신 장애에 강력한 위험요인이라는 것이다(Carr, Martins, Stingel, Lemgruber & Juruena, 2013; Horwitz, Widom, McLaughlin & White, 2001; Vranceanu, Hobfoll & Johnson, 2007). 실제, 학대 경험이 있는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높은 정신장애 발병률을 보였으며(Teicher & Samson, 2013), 국내 피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신장애 발병률 조사에서도 절반 이상(50.8%)의 아동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등 하나 이상의 정신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하지혜, 임성후, 조수현, 2015). 아동학대로 인한 낮은 심리사회적 발달 수준 또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성장 궤적에서 정서 및 행동 문제, 심지어 정신 장애 발병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Appleyard, Yang & Runyan, 2010; Ju & Lee, 2018)를 미루어볼 때, 아동학대가 초래하는 심리사회적 발달상의 문제를 확인하여 이에 초점을 맞춘 개입을 제공하는 것이 피학대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감소와 정신장애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변인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Thornberry, Henry, Ireland & Smith, 2010). 아동학대 연구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신뢰로운 방법은 아동학대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무작위 배정(random assignment) 실험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Angrist & Pischke, 2014; Martin, 2008). 그러나 연구를 위해 무작위로 학대집단에 배정된 개인에게 학대를 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되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무작위 실험연구는 불가하다.

이에 대다수 아동학대 연구들은 무작위 배정 과정을 거치지 않는 관찰연구(observational study)를 진행하나, 이는 선택편향(selection bias)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연구 방법이다. 선택편향이란 특정 공변량(covariate)에 의해 연구 대상이 특정 개입을 받을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대상 집단 간 이질성에 의해 발생한다(이동규, 2016). 이러한 공변량은 개입 및 대조집단 간 차이를 밝히는데 혼란 변인으로 작용하여, 개입 효과에 대한 과소 또는 과대 추정의 문제나 인과 추론의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이동규, 2016; Angrist & Pischke, 2014). 예를 들어, ‘병원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가?’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입원 경험자와 입원 미경험자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여 비교하면, 입원 경험자의 건강이 유의하게 낮게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병원에 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건강 상태가 나쁘기 때문이다(Angrist & Pischke, 2014). 즉, 기저선의 건강 상태가 공변량으로 포함되어 선택 편향을 발생시키고, 이는 입원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 유무, 건강 문제, 스트레스 및 경제 수준, 가족 구조 등 다양한 요인이 아동학대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선행 연구 결과(안선경, 양지혜, 정익중, 2012; Stith et al., 2009)는 아동학대 연구에서 상기한 변인을 포함한 여러 변인이 공변량으로 기능하여 선택편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상기한 변인 중에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부적 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변인들도 존재한다(e.g., 부모 스트레스: Crum & Moreland, 2017; 사회경제적 수준: Herd, King-Casas & Kim-Spoon, 2020).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선택편향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대가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경우 학대와 다른 변인의 효과가 혼재되어 학대의 효과가 과대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선택편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분석(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PSM)을 사용할 수 있다. PSM은 공변량에 대한 개인별 성향점수를 추정하고, 추정된 성향점수를 이용해 개입집단과 대조집단의 특성이 동일하게 분포되도록 조정하는 분석 방법이다. 다른 공변량의 효과가 없다는 가정하에 특정 공변량에 대한 수준을 맞춘 두 집단의 결과 변인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개입의 효과에 의해 발생한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이동규, 2016).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학대 피해경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향점수매칭분석을 적용하여 학대 피해경험이 심리사회적 발달(i.e., 정서 문제, 자아 인식, 또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II. 방 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및 중학교 1학년 모집단 대상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2010년부터 2016년에 걸쳐 실시한 추적조사이다. 그중, 만 12세~15세에 해당하는 학대 피해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보고(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및 각 조사 연도별 주요 변인(i.e., 학대 피해경험) 포함 여부를 고려해 만 12세~14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3차~5차 연도(2012년~2014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3차 연도 자료에서는 개입 변인(treatment variable)인 학대 피해경험과 매칭 변인(matching variables)인 아동 및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등을 추출하였다. 이때, 개입 변인은 특정 개입을 받은 여부로써 개입 및 대조집단(i.e., 학대 및 통제집단)을 구분하는 변인이며, 매칭 변인은 두 집단 간 특성 동일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성향점수매칭분석에 포함된 변인을 뜻한다. 더불어 학대 피해경험의 중단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4, 5차 연도 자료에서 심리사회적 발달에 대한 결과 변인(outcome variables)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3~5차 연도에 모두 응답한 2,070명(원표본 유지율 87.1%) 중 결측치 및 자료의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은 사례(e.g., 동일 응답 반복 등)를 일괄 삭제하여, 최종 1,685명(남자 52.5%)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측정 도구

1) 개입 변인

본 연구의 개입 변인은 학대 피해경험 여부로, 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패널조사단이 허묘연(2000)과 김세원(2003)의 문항을 수정·보완한 아동학대 피해경험 척도 중 학대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4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4점 Likert 척도(1=매우 그렇다, 4=전혀 그렇지 않다)상에서 평정한다. 모든 문항은 역채점하여 합산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경험한 학대 피해 심각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대 피해경험 여부는 8점을 기준으로 구분(i.e., 학대집단=1, 통제집단=0으로 코딩)하였으며(하혜주, 심은정, 2019),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45이었다.

2) 결과 변인

정서 문제.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 증상은 조봉환,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문항 제외 및 수정한 21문항(각각 7문항, 6문항, 8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우울은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의 우울척도(13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보완한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사회적 위축은 김선희, 김경연(1998)이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문항 제외 및 수정한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매우 그렇다, 4=전혀 그렇지 않다)상에서 평정하며, 모두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 문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 인식.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를 변안한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자아정체감은 송연옥(2008), 그리고 진로정체감은 공인규(2008)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각각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매우 그렇다, 4=전혀 그렇지 않다)상에서 평정하며, 일부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1
결과 변인의 문항 구성 및 내적합치도

결과 변인	하위 변인	문항 수	점수 범위	예시 문항	내적 합치도
정서 문제	주의집중	7	7-28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802
	공격성	6	6-24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813
	우울	10	10-40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902
	신체 증상	8	8-32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잠에서 깨곤 한다.	.854
	사회적 위축	5	5-20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885

결과 변인	하위 변인	문항 수	점수 범위	예시 문항	내적 합치도
	자아존중감	10	10-40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841
자아 인식	자아정체감	8	8-32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한다.	.586
	진로정체감	8	8-32	나는 장래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대체로 방향을 정했다.	.888
또래 애착	의사소통	3	3-12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809
	신뢰	3	3-12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847
	소외	3	3-12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738

또래 애착. 의사소통, 신뢰, 소외를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애착 척도 중 하위영역별 중복 문항을 제외하고, 각 영역당 3개 문항, 총 9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매우 그렇다, 4=전혀 그렇지 않다)상에서 평정한다. 일부는 역채점하여 의사소통, 신뢰, 및 소외는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결과 변인의 문항 구성 및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결과 변인의 내적합치도는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정체감의 내적합치도(.586)는 수용 가능한 내적합치도 기준(0.7 이상; Nunnally, 1978; Santos, 1999에서 재인용)을 충족하지 못하여 측정의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아 이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매칭 변인

본 연구에서는 학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8개의 변인을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위험 요인으로 밝혀졌거나 이전 성향점수매칭 분석에서 매칭 변인으로 사용했던 변인을 고려하여(안선경 외, 2012; Stith et al., 2009; Thornberry et al., 2010), 아동의 성별, 모 나이, 모 직업 유무, 부모 교육수준, 소득, 주관적 건강 상태, 그리고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사용하였다. 더불어, 부모의 학대와 아동의 공격성이 상호인과관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박현선, 박지명, 김정은, 2014)를 바탕으로, 아동의 공격성(3차 연도)을 매칭 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성별은 남=1, 여=0, 모 직업 유무는 있음=1, 없음=0, 부모 교육수준은 각각 대학교 졸업 이상=1, 고등학교 졸업 이하=0, 소득은 가구 연간 소득을 만원 단위로 변환하여 측정하였다. 주관적 건강 상태와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모두 4점 Likert 척도(1=매우 건강하다/만족한다, 4=매우 건강하지 못하다/만족하지 못한다)상에서 측정하나, 1 또는 2점으로 응답한 경우는 1점으로, 3 또는 4점으로 응답한 경우는 0점으로 재코딩하였다.

3. 자료 분석

학대 피해경험 여부에 따른 심리사회적 발달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학대집단과 통제집단의 성향점수 추정을 위해 매칭 변인을 독립 변인, 개입 변인인 학대 피해경험을 종속 변인으로 투입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학대집단의 성향점수와 유사한 통제집단의 구성원을 짝짓기(matching)하기 위해 캘리퍼 매칭(caliper matching) 방법을 적용하고, 1:1 매칭이 되도록 설정하였다. 이후, 짝짓기를 통해 형성된 두 집단의 특성이 균형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매칭균형검사(matching balance check)를 실시하였다. 매칭균형 검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속형 변인(continuous variable)의 경우, 표준화된 차이(standard difference)가 0.05 이하이며 표준편차 비율(ratio of standard deviations)이 0.91과 1.10 사이, 이분형 변인(binary variable)은 집단 간 퍼센트 차이가 2.5% 이하. 마지막으로, 성향점수매칭으로 구성된 두 집단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학대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회귀분석 시, 다중 비교에 의한 1종 오류 증가를 고려하여 본페로니 보정(Bonferroni correction)을 사용해 모든 분석 값에 대한 유의 수준을 0.0050 미만(i.e., 결과 변인 10개에 대한 단순 회귀분석을 반복 실시함에 따라, $0.05/10=0.0050$)으로 설정하였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대 피해경험 척도는 학대 경험 여부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해당 척도를 활용한 선행 연구들은 임의의 준거점을 마련해 학대 경험 여부를 구분하였다(표 2).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대 피해경험에

대한 두 가지 기준점(기준 2-3)을 추가 적용하여 분석 결과들이 일관적인지 확인하는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STATA 16.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표 2
선행 연구에서 활용한 학대 피해경험 척도[†] 기준점

	기준점	참고문헌
기준 1	4문항 총합 [‡] ≥ 8점	하혜주, 심은정(2019)
	4문항 평균 [‡] ≥ 2점	이종석, 정득, 김인설, 황현석(2014)
기준 2	4문항 중 한 문항 이상에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	이영애, 정현희(2018) 이인선, 최지현(2014)
기준 3	모든 문항에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	박영준, 성효정(2014)

주. [†]총 4문항; 4점 Likert 척도(1=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 상에서 평정; [‡]모든 문항 역채점 후 계산.

III. 결 과

1. 성향점수매칭분석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해 연구대상자의 사례별 성향점수를 산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대집단과 통제집단의 표본을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학대집단의 48개 사례, 통제집단의 571개 사례가 제외되어, 최종 학대 및 통제집단 각각 533명, 총 1,066명의 자료가 성향점수매칭분석에 활용되었다.

1) 표본 동질성 검증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학대 및 통제집단의 표본 동질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칭균형검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표 3), 매칭 전에는 아동의 성별, 공격성, 부모 교육수준, 가계소득, 부모의 삶의 만족도 변인을 포함한 대다수 변인의 균형이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칭 전 두 집단의 특성이 이질적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향점수를 적용하여 구성된 두 집단의 모든 매칭 변인은 매칭균형검사의 기준을 만족하여,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 간 성향점수 차이 검증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고($t=-0.25, p=.81$), 그림 1의 두 집단 성향점수 분포가 대체로 상하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됨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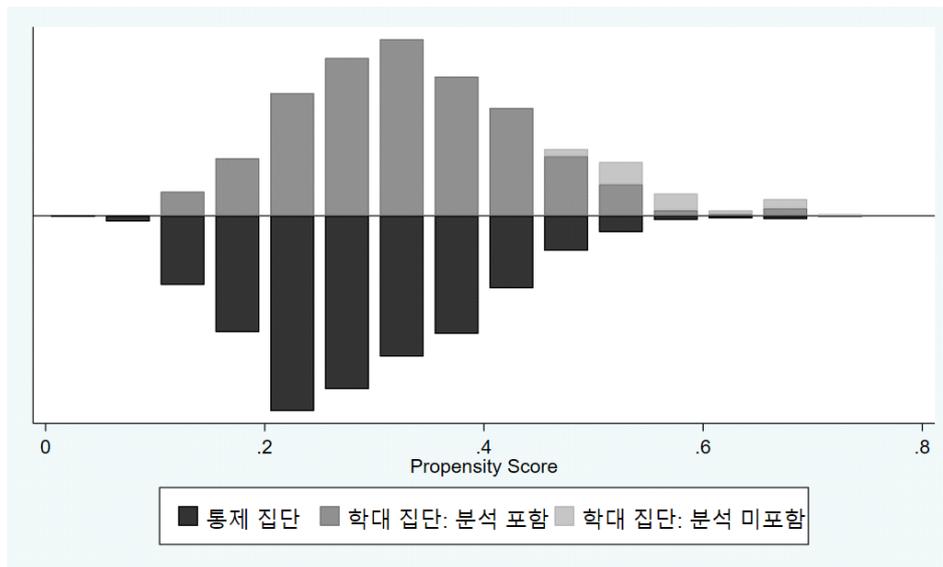


그림 1. 집단별 성향점수 그래프

표 3
표본 동질성 검증

변인	매칭 전 (N=1,685)				매칭 후 (N=1,066)				
	학대 집단 (n=581)	통제 집단 (n=1,104)	STD diff	Ratio of SDs	학대 집단 (n=533)	통제 집단 (n=533)	STD diff	Ratio of SDs	
	M(SD) or %	M(SD) or %			M(SD) or %	M(SD) or %			
아동 변인									
성별	남	59.6	48.8	0.218	0.98	57.6	56.7	0.019	1.00
공격성		13.57 (3.35)	11.38 (3.63)	0.651	0.92	13.11 (3.04)	13.20 (3.31)	-0.026	0.95
성별×공격성		8.08 (7.21)	5.56 (6.25)	0.350	1.15	7.47 (6.86)	7.26 (6.83)	0.029	1.01
부모 변인									
모 나이 [†]		0.06 (3.89)	0.05 (3.73)	0.003	1.04	0.01 (3.95)	-0.06 (3.86)	0.018	1.02
모 직업유무	있음	64.7	63.4	0.027	0.99	64.5	66.8	-0.047	1.02
부 교육수준	>고졸	58.3	61.7	-0.068	1.01	58.7	59.8	-0.023	1.00
모 교육수준	>고졸	49.6	52.3	-0.054	1.00	49.5	51.4	-0.037	1.00
가계소득 [‡]		8.35 (0.46)	8.39 (0.47)	-0.087	0.97	8.35 (0.45)	8.36 (0.47)	-0.024	0.97
건강	높음	94.5	95.6	-0.047	1.11	94.6	94.2	0.016	0.97
삶의 만족도	높음	88.5	91.8	-0.106	1.17	89.1	90.2	-0.035	1.05
부 교육수준 ×삶의 만족도		55.8	59.8	-0.081	1.01	56.3	57.6	-0.026	1.00

주. [†]평균 중심화; [‡]로그 변환; *STD diff*=표준화된 차이(standard difference); *Ratio of SDs*=표준편차 비율(ratio of standard deviations).

2) 학대 피해경험 효과 검증

동질성을 확보한 표본으로 학대 피해경험이 정서 문제, 자아 인식, 또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서 문제 영역에서 공격성, 우울, 및 신체 증상에서는 성향점수를 이용한 매칭 전보다 매칭 후 두 집단 간 차이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4). 즉, 학대 피해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공격성, 우울, 신체 증상이 각각 0.69점, 1.18점, 1.15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칭 전에는 학대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주의집중 및 사회적 위축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매칭 후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4

PSM 추정결과: 정서 문제

변인	표본	<i>b</i>	Robust Std. Err.	<i>t</i>	<i>p</i>	95% <i>CI</i>
주의집중	매칭 전	1.117	0.189	5.92	.0000	0.746, 1.487
	매칭 후	0.296	0.219	1.35	.1765	-.1340, 0.726
공격성	매칭 전	1.296	0.167	7.82	.0000	0.971, 1.621
	매칭 후	0.694	0.195	3.55	.0004	0.311, 1.077
우울	매칭 전	1.644	0.287	5.74	.0000	1.082, 2.206
	매칭 후	1.181	0.342	3.45	.0006	0.510, 1.854
신체 증상	매칭 전	1.512	0.235	6.43	.0000	1.050, 1.972
	매칭 후	1.154	0.282	4.09	.0000	0.601, 1.707
사회적 위축	매칭 전	0.676	0.184	3.66	.0003	0.314, 1.039
	매칭 후	0.435	0.215	2.02	.0431	0.013, 0.857

주. 매칭 전 *N*=1,685; 매칭 후 *N*=1,066.

다음으로, 학대집단과 통제집단의 자아 인식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표 5),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매칭 전에 비해 매칭 후에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여전히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학대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은 0.86점, 진로정체감은 0.83점 낮았다.

마지막으로, 매칭 전에는 또래 애착 영역의 모든 변인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매칭 후에는 소외 변인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및 신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6). 학대 피해를 겪은 청소년이 학대 피해를 겪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또래에서의 소외 수준이 평균 0.44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PSM 추정결과: 자아 인식

변인	표본	<i>b</i>	Robust Std. Err.	<i>t</i>	<i>p</i>	95% <i>CI</i>
자아존중감	매칭 전	-1.464	0.234	-6.25	.0000	-1.923, -1.004
	매칭 후	-0.863	0.274	-3.14	.0017	-1.402, -0.325
진로정체감	매칭 전	-0.903	0.249	-3.63	.0003	-1.391, -0.416
	매칭 후	-0.831	0.290	-2.87	.0042	-1.400, -0.262

주. 매칭 전 *N*=1,685; 매칭 후 *N*=1,066.

표 6
PSM 추정결과: 또래 애착

변인	표본	<i>b</i>	Robust Std. Err.	<i>t</i>	<i>p</i>	95% <i>CI</i>
의사소통	매칭 전	-0.343	0.084	-4.10	.0000	-0.507, -0.179
	매칭 후	-0.214	0.098	-2.18	.0296	-0.407, -0.021
신뢰	매칭 전	-0.262	0.090	-2.92	.0035	-0.438, -0.086
	매칭 후	-0.096	0.107	-0.91	.3629	-0.308, 0.117
소외	매칭 전	0.603	0.109	5.54	.0000	0.389, 0.816
	매칭 후	0.439	0.130	3.37	.0008	0.184, 0.694

주. 매칭 전 *N*=1,685; 매칭 후 *N*=1,066.

2.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을 위해 학대 피해경험에 대한 다른 두 가지 기준점(기준 2-3)을 각각 적용하여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상기한 분석 절차와 동일하게 PSM값을 추정한 후 표본을 재구성하였다. 매칭균형검사 및 집단 간 성향점수 차이 검증 결과(기준 2: $t=-0.12$, $p=.90$; 기준 3: $t=-0.00$, $p=1.00$), 기준 2와 3의 매칭 후 집단 간 동질성이 모두 확보되어 기준별로 학대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준 2를 적용한 경우에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정서 문제의 우울 변인에서만 유의하였다($\alpha=.005$). 기준 3에서는 정서 문제 중 공격성과 우울, 그리고 자아인식 중 자이존중감에서 학대의 효과가 관찰되었다. 반면, 앞선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신체 증상, 진로정체감 및 소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표 7

민감도 분석: PSM 추정 결과

변인	기준 2 [†]					기준 3 [‡]				
	<i>b</i>	Robust Std. Err.	<i>t</i>	<i>p</i>	95% <i>CI</i>	<i>b</i>	Robust Std. Err.	<i>t</i>	<i>p</i>	95% <i>CI</i>
주의집중	0.196	0.243	0.81	.4200	-0.280, 0.672	0.670	0.551	1.76	.0808	-0.120, 2.060
공격성	0.485	0.214	2.27	.0234	0.066, 0.905	1.697	0.550	3.09	.0025	0.609, 2.785
우울	1.075	0.368	2.92	.0036	0.353, 1.797	3.197	1.049	3.05	.0028	1.122, 5.273
신체 증상	0.725	0.303	2.39	.0171	0.130, 1.320	1.894	0.834	2.27	.0247	0.245, 3.543
사회적 위축	0.313	0.236	1.33	.1851	-0.150, 0.775	0.667	0.609	1.10	.2754	-0.537, 1.871
자이존중감	-0.602	0.295	-2.04	.0417	-1.182, -0.023	-2.333	0.769	-3.03	.0029	-3.856, -0.811
진로정체감	-0.041	0.315	-0.13	.8949	-0.661, 0.577	0.318	0.814	0.39	.6967	-1.293, 1.929
의사소통	-0.213	0.109	-1.95	.0520	-0.427, 0.002	-0.242	0.297	-0.81	.4166	-0.831, 0.346
신뢰	-0.104	0.114	-0.92	.3594	-0.327, 0.119	0.227	0.286	0.79	.4289	-0.334, 0.794
소외	0.369	0.142	2.60	.0094	0.091, 0.647	0.727	0.418	1.74	.0844	-0.100, 1.555

주. [†]4문항 중 한 문항 이상에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에 응답; 매칭 후 $N=960$;

[‡]모든 문항에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에 응답; 매칭 후 $N=132$.

IV. 논 의

본 연구는 선택편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연구 방법으로 실시된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학대 피해경험이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중 초4패널 3차~5차 연도 자료를 대상으로 성향점수매칭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아동과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동일하도록 재구성된 학대 및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학대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에 학대를 받은 청소년은 학대받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공격성, 우울, 신체 증상과 같은 정서 문제 수준이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Arslan, 2016; Butaney et al., 2011).

학대하는 부모는 학대하지 않는 부모와 비교해 긍정적인 정서는 덜 표현할 뿐 아니라 강렬한 적대감이나 대인관계적 위협을 포함한 부정적인 정서는 더욱 많이 표현한다(Cicchetti & Valentino, 2006). 더불어 학대하는 부모는 그들 스스로와 자녀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철수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학대받은 아동은 부모 이외의 타인과 정서적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제한적이고 비정상적인 정서 경험은 피학대 아동에게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처리하는 능력의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Cicchetti, 2016). 초기 부모-자녀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서를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아동학대가 피학대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 발달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Sroufe, 1996; Cicchetti, 2016에서 재인용).

학대받은 사람들에게 학대 그 자체는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이다. 특히, 피학대 아동들은 어린 나이에 자신이 감당하고 처리하기 힘든 큰 정서적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고미영, 2004). 그러나 학대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처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울이나 신체 증상을 비롯한 여러 정서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아 인식 영역에서는 학대 피해경험 집단이 통제집단과 비교해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손연아, 신수지, 손은령, 2014; 최미혜, 2016; Arslan, 2016; Ju & Lee, 2018).

지지적이고 따뜻한 부모의 행동과 긍정적인 가족관계 경험은 아동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Shaffer & Kipp, 2013). 그러나 자신을 때리거나 욕설을 일삼는 부모를 둔 피학대 아동들은 자신을 존중하기가 어렵고 자신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Arslan, 2016). Ju와 Lee(2010)의 연구에서는 피학대 아동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해하고자 국내 학대 피해 아동 357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가 아동들은 “내가 나쁜 아이예요.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요”, 혹은 “내가 문제예요”라며 학대의 원인을 내적 귀인 하거나, 부모의 부적절한 행동은 자신 스스로 부족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등 부모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학대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부모가 자신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자신이 나쁘고 무가치하기 때문이라고 귀결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왜곡되고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낮은 진로정체감도 학대의 결과로 초래되는 부정적인 결과 중 하나로 나타났다. 하혜주와 심은정(2019)의 연구는 신체학대(i.e., 부모로부터 신체폭력을 당함)가 개별 우울 증상 중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느끼는 무망감과 가장 강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Bringmann, Lemmens, Huibers, Borsboom and Tuerlinckx(2015)의 연구에서는 우울 증상 중 무가치감 증상이 흥미 저하 증상을 직접 활성화하는 증상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아동학대로 인해 초래된 무가치감과 무망감이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위해 탐색을 시작하는 중대한 시기에 놓인 아동 및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에 대한 흥미를 낮추고 궁극적으로 진로정체감 형성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손연아 외, 2014; 인효연, 2018).

셋째, 학대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해 또래 관계에서 소외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받은 청소년이 학대받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또래에게 더욱 소외를 많이 경험한다는 정익중(2008)의 연구와 일치한다.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래 관계에서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다음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상기했듯이, 피학대 아동은 부모들의 사회적 철수 성향으로 인해 정서적 상호작용 경험이 매우 제한적이다(Cicchetti, 2016). 이에 그들은 자신의 부모

로부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모델을 발달시키지 못하여, 적절한 또래 관계나 또래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학대 경험은 사회적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da Silva Ferreira, Crippa & de Lima Osório, 2014; Doretto & Scivoletto, 2018), 이러한 정보처리 능력의 결함은 궁극적으로 대인관계 부적응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양재원, 박나래, 정경미, 2011; Keil & Price, 2009; Shackman & Pollak, 2014).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사람들은 비학대집단에 비해 사회적 정보(e.g., 얼굴표정)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고, 위협 단서는 더욱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경향을 나타냈다(하혜주, 심은정, 2018; da Silva Ferreira et al., 2014; Doretto & Scivoletto, 2018; Pollak & Sinha, 2002).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의 정서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은 회피나 공격과 같은 부적절한 행동 반응을 매개하여 결과적으로 또래로부터의 거부나 소외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재원 외, 2011; Keil & Price, 2009). 정익중(2008)은 아동학대 경험과 또래에서의 소외를 매개하는 변인을 식별하고자 공격성, 사회적 위축, 인지학습능력을 매개 변인으로 투입한 모형을 검증하여, 세 변인 중 공격성이 가장 강하게 학대와 소외를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은 학대하는 부모로 인해 제한된 사회적 상호작용이 친밀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야기할 뿐 아니라, 부적응적인 정보처리 능력 발달로 인한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에 의해 또래 관계에서의 소외를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선행연구 결과와 상반되게 정서 문제 중 주의집중 및 사회적 위축, 또래 애착 영역 중 의사소통과 신뢰에서는 학대 피해경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향점수 매칭 전 유의했던 집단 간 차이가 매칭 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기존 연구들이 집단 간 공변량에 대한 동질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여 학대의 효과를 과대추정한 것에서 기인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KCYPS의 학대 피해경험 척도는 학대 및 통제집단을 구분하는 검증된 기준점이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하혜주, 심은정(2019)에서 사용한 기준점(기준 1: 총점 \geq 8점)을 적용하는 한편,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다른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기준점(기준 2: 한 문항 이상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에 응답; 이영애, 정현희,

2018; 이인선, 최지현, 2014; 기준 3: 모든 문항에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에 응답; 박영준, 성효정, 2014)을 추가 적용하여 학대의 효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 기준점에 따라 학대 효과의 유의성이 달라졌다. 기준 2 적용 시에는 우울에서만 학대의 부정적 효과가 관찰되었고, 엄격한 기준 3의 적용 시 우울,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에서 학대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는 기준점에 따라 개별 참가자의 집단 구분이 달라지는 것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기준 1-3을 적용했을 때 학대집단으로 구분되는 사례는 각각 581명, 513명, 68명이었다. 기준 3의 학대집단 68명은 모두 기준 1의 학대집단에 속하였으나, 기준 2의 학대집단 513명 중 150명은 기준 1의 통제집단에 속한 사례였고, 기준 1에서는 학대집단이었으나 기준 2에서 통제집단에 속한 사례도 218명에 이르렀다. 기준 1과 2 적용 시 집단 구분이 달라지는 사례는 전체의 21.8%를 차지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기준점 적용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연구 간 일관되지 않은 학대 기준점은 연구 결과의 이해 및 해석을 어렵게 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검증된 기준점을 가진 척도를 사용하거나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가 다양한 심리사회적 발달상의 문제(i.e., 공격성, 우울, 신체 증상,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또래에서의 소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학대 피해자에게 다차원적인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심리적 개입(e.g., 외상 초점 인지행동치료; Trauma Focused-Cognitive Behavioral Therapy, TF-CBT; Cohen & Mannarino, 2008)이 보다 효과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TF-CBT는 외상을 경험한 3~18세 아동과 비가해 보호자를 위해 개발된 근거기반치료로써, 이완, 정서 조절, 인지적 대처기술, 외상에 대한 점진적 노출, 인지적 재구조화를 포함한 다중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정서 이해와 정서 조절 및 대처기술 능력을 함양시키고, 자신을 수용하고 강점을 찾으며 낮아진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Cohen & Mannarino, 2008; Feather & Ronan, 2012). 실제, 성 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기관 무작위 통제 연구에서는 내담자 중심 치료에 비해 TF-CBT가 우울, 행동 문제, 수치심의 수준을 낮추고 대인관계 신뢰 회복에 더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Cohen, Deblinger, Mannarino & Steer, 2004). 그러나 최근 실시된 학대 피해아동 대상 개입 고찰 연구는 국내 피학대 아동에 대한 개입이 대부분 미술

치료나 놀이치료이며, 주로 우울·불안 경감이나 자이존중감 향상 등 단일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오혜경, 이수진, 박세은, 2020). 이에 다양한 발달 및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아동학대 피해경험자를 위해 더욱 효과적인 근거 기반치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성향점수매칭분석을 이용해 설문조사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선택편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칭 변인으로 학대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부모의 교육 수준, 가계소득, 건강 등을 매칭 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지만(안선경 외, 2012), 데이터상의 한계로 모의 우울, 가족 구조 등의 변인들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또한, 성향점수매칭분석이 여타의 분석법에 비해 인과적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대 피해경험과 심리사회적 발달 간 인과관계 추론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정교한 방식으로 집단을 구성(e.g., 이전에 학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례 중 이후 시점의 학대 피해경험 유무를 통해 학대 및 통제집단 구성)하고 해당 분석을 적용한다면, 학대의 인과적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성향점수매칭분석을 적용하여 학대 피해경험이 심리사회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피학대 집단의 높은 공격성, 우울, 및 신체 증상과 또래 관계에서의 소외, 그리고 낮은 자이존중감 및 진로 정체감은 아동학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에서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종합적이고 다차원적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고미영 (2004).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1), 71-102.
- 공인규 (2008). **Holland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학습부진아의 진로성숙도, 진로효능감, 진로정체감 및 진로장애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 정신진단검사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김선희, 김경연 (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준, 성효정 (2014). 보호자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46, 85-114.
- 박현선, 박지명, 김정은 (2014). 부모의 학대와 자녀의 공격성의 종단적 상호인과관계: 빈곤 및 비빈곤 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9, 1-24.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 손연아, 신수지, 손은령 (2014).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연구. **진로교육연구**, 27(1), 109-125.
- 송연옥 (2008).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간의 구조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선경, 양지혜, 정익중 (2012).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영역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38, 331-358. doi:10.16975/kjfs.w.2012..38.011
- 안은미, 이지연, 정익중 (2013). 정서학대가 또래애착과 교사에착에 미치는 영향: 학업성취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1), 201-226.
- 양재원, 박나래, 정경미 (2011). 얼굴표정 정서 인식 능력과 고등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 및 또래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2), 475-495. doi:10.15842/kjcp.2011.30.2.007
- 오혜경, 이수진, 박세은 (2020). 학대 아동 대상 중재에 대한 통합적 문헌고찰: 국내·외 학대 아동 중재 관련 연구(2009-2019)를 중심으로.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4(2), 111-121.

- 이동규 (2016).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의 소개.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11(2), 130-148.
- 이영애, 정현희 (2018). 초기 청소년의 학대경험 유무 및 지속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25(1), 317-339. doi.org/10.21509/kjys.2018.01.25.1.317
- 이인선, 최지현 (2014).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폭력의 중복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5(3), 259-281. doi:10.14816/sky.2014.25.3.259
- 이종석, 정득, 김인설, 황현석 (2014).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 부모학대경험 여부의 조절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5(5), 2713-2723. doi:10.5762/KAIS.2014.15.5.2713
- 인효연 (2018). 초, 중학교 전환기 아동의 성취가치,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변화와 진로 정체감 간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9(4), 885-912. doi:doi.org/10.15753/aje.2018.12.19.4.885
- 정익중 (2008).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경로. *아동학회지*, 29(4), 79-95.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최미혜 (2016). 부모의 방임·학대 양육방식이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적응과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아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7(2), 59-92. doi:10.14816/sky.2016.27.2.59
- 하지혜, 임성후, 조수현 (2015).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정신질환 유병률 조사.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54(4), 542-548. doi:10.4306/jknpa.2015.54.4.542
- 하혜주, 심은정 (2018).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얼굴표정 정서인식의 차이. *한국청소년연구*, 29(2), 97-123. doi:10.14816/sky.2018.29.2.97
- 하혜주, 심은정 (2019). 아동학대 유형과 우울 증상 양상의 관계: 네트워크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0(1), 251-277. doi:10.14816/sky.2019.30.1.251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hn, J., Lee, B. J., Kahng, S. K., Kim, H. L., Hwang, O. K., Lee, E. J., ... &

- Yoo, Y. S. (2017). Estimating the prevalence rate of child physical and psychological maltreatment in South Korea. *Child Indicators Research*, 10(1), 187-203. doi:10.1007/s12187-016-9369-z
- Angrist, J. D., & Pischke, J. S. (2014). **대체로 해롭지 않은 계량경제학** [Mostly harmless econometrics: An empiricist's companion]. (강창희, 박상곤 역.). 서울: 경문사. (원저 2008에 출판)
- Appleyard, K., Yang, C., & Runyan, D. K. (2010). Delineating the maladaptive pathways of child maltreatment: A mediated moderation analysis of the roles of self perception and social suppor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2(2), 337-352. doi:10.1017/S095457941000009X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doi:10.1007/BF02202939
- Arslan, G. (2016). Psychological maltreatment,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resilience and self-esteem. *Child Abuse & Neglect*, 52, 200-209. doi:10.1016/j.chiabu.2015.09.010
- Bringmann, L. F., Lemmens, L. H. J. M., Huibers, M. J. H., Borsboom, D., & Tuerlinckx, F. (2015). Revealing the dynamic network structure of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II. *Psychological Medicine*, 45(4), 747-757. doi:https://doi.org/10.1017/S0033291714001809
- Butaney, B., Pelcovitz, D., & Kaplan, S. (2011). Psychological maltreatment as a moderator for physical abuse and adolescent maladjustment: Implications for treatment and intervention. *Journal of Infant, Child, and Adolescent Psychotherapy*, 10(4), 442-454. doi:10.1080/15289168.2011.614515
- Carr, C. P., Martins, C. M. S., Stingel, A. M., Lemgruber, V. B., & Juruena, M. F. (2013). The role of early life stress in adult psychiatric disorders: a systematic review according to childhood trauma subtype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201(12), 1007-1020. doi:10.1097/NMD.0000000000000049

- Cast, A. D., & Burke, P. J. (2002). A Theory of Self-Esteem. *Social Forces*, 80(3), 1041-1068. doi:10.1353/sof.2002.0003
- Cicchetti, D. (2016). Socioemotional, personality, and biological development: illustrations from a multilevel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on child maltreat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7, 187-211. doi:10.1146/annurev-psych-122414-033259
- Cicchetti, D., & Valentino, K. (2006). An Ecological-Transactional Perspective on Child Maltreatment: Failure of the Average Expectable Environment and Its Influence on Child Development. In *Risk, Disorder, and Adaptation* (Vol. 3, pp. 129-201). Wiley. doi:10.1002/9780470939406.ch4
- Cohen, J. A., Deblinger, E., Mannarino, A. P., & Steer, R. A. (2004). A multisite, randomized controlled trial for children with sexual abuse-related PTSD symptom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3(4), 393-402. doi:10.1097/00004583-200404000-00005
- Cohen, J. A., & Mannarino, A. P. (2008). Trauma-focused cognitive behavioural therapy for children and parents.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13(4), 158-162. doi:10.1111/j.1475-3588.2008.00502.x
- Crum, K. I., & Moreland, A. D. (2017). Parental stress and children's social and behavioral outcomes: The role of abuse potential over tim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6(11), 3067-3078. doi:10.1007/s10826-017-0822-5
- da Silva Ferreira, G. C., Crippa, J. A., & de Lima Osório, F. (2014). Facial emotion processing and recognit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Frontiers in Psychology*, 5, 1-10. doi:10.3389/fpsyg.2014.01460
- Doretto, V., & Scivoletto, S. (2018). Effects of Early neglect experience on recognition and processing of facial expressions: a systematic review. *Brain Sciences*, 8(1), 10. doi:10.3390/brainsci8010010
- Feather, J. S & Ronan, K. R. (2012). **아동의 외상과 학대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단계적 접근** [Cognitive behavioural therapy for child trauma and abuse: a step-by-step approach]. (신현균 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10에 출판).

- Gardner, M. J., Thomas, H. J., & Erskine, H. E. (2019). The association between five forms of child maltreatment and depressive and anxiety disorder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hild Abuse & Neglect*, *96*, 104082. doi:10.1016/j.chiabu.2019.104082
- Gorrese, A., & Ruggieri, R. (2012). Peer attachment: A meta-analytic review of gender and age differences and associations with parent attach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5), 650-672. doi:10.1007/s10964-012-9759-6
- Herd, T., King-Casas, B., & Kim-Spoon, J. (2020). Developmental changes in emotion regulation during adolescence: associations with socioeconomic risk and family emotional contex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9*, 1545-1557.
- Horwitz, A. V., Widom, C. S., McLaughlin, J., & White, H. R. (2001). The impact of childhood abuse and neglect on adult mental health: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2), 184-201. doi:10.2307/3090177
- Ju, S., & Lee, Y. (2010). Experiences of family maltreatment by Korean children in Korean National Protective Services. *Child Abuse & Neglect*, *34*(1), 18-27. doi:10.1016/j.chiabu.2009.09.009
- Ju, S., & Lee, Y. (2018).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peer attachment, child maltreatment and depression on early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76*, 353-363. doi:10.1016/j.chiabu.2017.11.015
- Keil, V., & Price, J. M. (2009).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patterns of maltreated children in two social domain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0*(1), 43-52. doi:10.1016/j.appdev.2008.10.003
- Lansford, J. E., Dodge, K. A., Pettit, G. S., Bates, J. E., Crozier, J., & Kaplow, J. (2002). A 12-year prospective study of the long-term effects of early child physical maltreatment on psychological, behavioral, and academic problems in adolescence.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6*(8), 824-830. doi:10.1001/archpedi.156.8.824

- Martin, D. W. (2008). **심리학 실험법, 제7판** [Doing psychology experiments]. (김민식, 감기택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2008에 출판).
- Moylan, C. A., Herrenkohl, T. I., Sousa, C., Tajima, E. A., Herrenkohl, R. C., & Russo, M. J. (2010).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on adolesc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5*(1), 53-63. doi:10.1007/s10896-009-9269-9
- Pollak, S. D., & Sinha, P. (2002). Effects of early experience on children's recognition of facial displays of emo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8*(5), 784-791. doi:10.1037/0012-1649.38.5.784
- Rokita, K. I., Dauvermann, M. R., & Donohoe, G. (2018). Early life experiences and social cognition in major psychiatric disorders: a systematic review. *European Psychiatry, 53*, 123-133. doi:10.1016/j.eurpsy.2018.06.006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nderud, K., Murphy, S., & Elklit, A. (2016). Child maltreatment and ADHD symptoms in a sample of young adults.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7*(1), 32061. doi:10.3402/ejpt.v7.32061
- Santos, J. R. A. (1999). Cronbach's alpha: A tool for assessing the reliability of scales. *Journal of Extension, 37*(2), 1-5.
- Shackman, J. E., & Pollak, S. D. (2014). Impact of physical maltreatment on the regulation of negative affect and agg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6*(4pt1), 1021-1033. doi:10.1017/S0954579414000546
- Shaffer, D. R., & Kipp, K. (2013).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Cengage Learning.
- Stith, S. M., Liu, T., Davies, L. C., Boykin, E. L., Alder, M. C., Harris, J. M., ... & Dees, J. E. M. E. G. (2009). Risk factors in child maltreatment: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literatur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4*(1), 13-29. doi:10.1016/j.avb.2006.03.006
- Teicher, M. H., & Samson, J. A. (2013). Childhood maltreatment and psychopathology:

A case for ecophenotypic variants as clinically and neurobiologically distinct subtyp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0(10), 1114-1133. doi:10.1176/appi.ajp.2013.12070957

Thornberry, T. P., Henry, K. L., Ireland, T. O., & Smith, C. A. (2010). The causal impact of childhood-limited maltreatment and adolescent maltreatment on early adult adjustment.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6(4), 359-365. doi:10.1016/j.jadohealth.2009.09.011

Trickett, P. K., Negriff, S., Ji, J., & Peckins, M. (2011). Child maltreatment and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1(1), 3-20. doi:10.1111/j.1532-7795.2010.00711.x

Vranceanu, A. M., Hobfoll, S. E., & Johnson, R. J. (2007). Child multi-type maltreatment and associated depression and PTSD symptoms: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tress. *Child Abuse & Neglect*, 31(1), 71-84. doi:10.1016/j.chiabu.2006.04.010

ABSTRACT

The effects of child abuse on psychosocial development: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Ha, Hyeju* · Shim, Eun-Jung**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between abuse and control groups in terms of emotional problems (i.e., concentration difficulties, aggression, depression, physical symptoms, social withdrawal), self-awareness (i.e., self-esteem, career identity) and peer attachment (i.e., communication, trust, alienation); in doing so, making use of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For this purpose, relevant data was obtained from the third through fifth waves of the elementary school fourth grade panel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By a matching process using the propensity score, 1,066 (abuse group=533, control group=533) pieces of data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compared with a control group with simila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dolescents with a history of child abuse were more likely to have emotional problems such as depression, aggression, and physical symptoms. Moreover, the abuse group had lower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and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peer alienation than the control group.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in concentration difficulties, social withdrawal, communication, and trust. The current results suggest that child abuse experiences disrupt emotional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and that comprehensive and multidimensional psychological treatment aimed at individuals who have experience of being abused in these ways is necessary.

Key Words: child abuse, emotional problem, self-awareness, peer attachment, propensity score matching

투고일: 2020. 9. 7, 심사일: 2020. 10. 28, 심사완료일: 2020. 11. 11

* Pusan National University, First author

** Pusan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angelasej@pusan.ac.kr